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박 유 리 안 세 영 최 보 영[†]

동부사회복지관 제주시교육지원청 Wee센터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변인들의 관계에 대한 국내연구 결과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 자료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한국학술정보원(KISS)과 국회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에서 2000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발행된 대학생 진로준비행동과 관련이 있는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제시한 국내 석·박사논문 및 학술지 게재 논문 150편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관련 변인군으로 사회인지진로이론에 근거한 4개의 변인군(개인변인, 근접맥락변인, 자기효능감변인, 목표변인)에 자기개념변인군을 추가하여 총 5개의 변인군을 설정하였고 분석 결과 19개의 변인이 추출되었다. 둘째, 대학생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변인군들 중 자기효능감변인군이 큰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자기개념변인군과 목표변인군은 중간크기의 효과크기를 보였다. 또한 개인변인군과 근접맥락변인군의 경우 변인군 내에 대학생의 진로행동을 유발하는 변인과 억제하는 변인이 함께 포함되어 작은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셋째,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관련 변인들 중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가장 큰 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성격특성인 탄력성도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는 희망,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사회적지지, 부모지지가 중간크기의 효과를 나타냈으며, 진로장벽은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억제하는 변인으로 중간크기의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과 제한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메타분석, 사회인지진로이론

* 본 원고는 2017년 8월 박유리의 석사학위논문 수정본입니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최보영,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제주특별시 제주대학로 102
Tel: 064-754-2168, E-mail: bychoi@jejunu.ac.kr

최근 높은 실업률과 경제 저성장화가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진로와 직업에 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학벌주의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성적에 맞추어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중·고등학교 시기에 자신의 직업에 대해 고민할 여유와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채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유수복, 2013). 진로를 고민할 시간을 위해 스스로 대학졸업 등을 유예하는 갭이어(Gap year)의 시간을 갖는 대학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 갭이어의 시간조차도 진로에 대한 탐색이 아닌 스펙을 쌓는 시간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파이낸셜뉴스, 2016. 01. 31). 2015년 대학 진로교육 실태 모니터링에 따르면 대학 내 진로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5점 척도 중 평균 4.24로, 응답자의 89.9%가 대학 내에서 진로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2016). 또한 대학 내 개인 상담을 신청하는 학생들의 주요 호소문제가 주로 진로나 적성문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볼 때, 실제적인 욕구와 고민이 상담신청으로까지 표현된다고 볼 수 있다(이미진, 2012).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상당수의 학생이 장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실천계획과 행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김현수, 장기명, 이난, 2004).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김봉환(1997)의 연구를 시작으로 진로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진로 결정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얼마나 자신의 진로 달성을 위하여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영역으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김봉환(1997)의 연구에서는 당시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 관련 연구 분야의

관심이 진로결정수준 혹은 진로미결정 등 대부분 개인의 인지나 태도에 관련되는 사항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진로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이나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 등을 포함하는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 연구가 이루어진 후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김봉환(1997)의 연구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의 2017년 4월 집계로 상세정보조회건수가 1,484건일 정도로 관심이 높은 연구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진로준비행동과 더불어 진로의 행동적인 측면을 연구하는 연구들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는 ‘직업탐색행동(job search behavior)’과 ‘취업준비행동(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이 있다. 직업탐색행동은 개인의 여러 가지 직업들 중에 대안들을 검토하고, 확장하며, 그 중에서 결정을 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며(Smith & Gerhart, 1991), 취업준비행동은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당면한 취업과제해결을 위한 행동(이제경, 이승구, 2007)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용어들을 진로준비행동과 비교해 보았을 때 진로준비행동은 대학생의 진로선택부터 직업에 대한 준비까지 진로 발달과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 볼 수 있는 용어인 반면, 직업탐색행동과 취업준비행동은 좀 더 구체적인 진로선택 이후의 과정을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진로준비행동을 연구하는 데 있어 가장 적절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모델은 개인의 진로효능감을 중심으로 진로선택 과정에서의 심리·사회적 요인을 설명한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이다. 전통적으로 주요 진로이론들은 진로행동이 개인 특성과

환경의 영향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하였다 (Osipow, 1990). 즉, 행동은 개인 특성과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일방적 관계였다. 그러나 사회인지진로이론은 개인 특성과 환경변인 등의 선행변인들과 진로결정 및 만족과 같은 결과 변인들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이 과정에서 결과기대와 개인적 목표가 자기효능감과 함께 상호작용하여 개인이 스스로 진로관련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게 한다고 제안한다(Hackett & Lent, 1992). 사회인지진로이론은 구체적인 진로결정과정의 모형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내의 경제부진으로 인해 취업의 어려움과 대학생이 경험하는 진로선택 과정의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적합한 이론적 틀이라고 볼 수 있다(김영혜, 안현희, 2012). 이렇듯 사회인지진로이론을 배경으로 매년 진로와 관련된 연구가 다양한 변인과 다양한 대상으로 연구되고 있다. 특히 진로에 대하여 직접 준비하고 행동하는 시기인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변인들에 관한 연구는 2013년도부터는 매년 30편 이상의 연구 결과가 발표될 만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개인 내적변인과 환경적 변인을 아우르고 있으며, 대상 또한 장애가 있는 대학생, 체육계열 대학생, 외식관련 학과 대학생, 사회복지 관련 대학생 등 세분화하여 적용, 연구하고 있다.

이렇듯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연구는 김봉환(1997)의 연구 이후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의 결과가 축적됨과 동시에 같은 변인의 연구 중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는 연구도 발생한다. 구체적인 예로 진로준비행동에서 개인적 특성별 변인인 성별에 따른 진

로준비행동수준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다고 연구(이기학, 1997) 한 바 있다. 반면에 김희진(2001)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성별의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상관연구를 살펴 볼 때 김정화, 김미경, 김진경, 고은영(2012)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더 잘 한다는 결과가 나오는 반면, 박초희(2012)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잘 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 진로준비행동 변인에 대한 진로결정수준의 상관에 대한 상충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서로 상충되거나 상관 값의 정도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결과들은 연구자들이 특정한 연구결과에만 의존하여 연구되었을 때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기존의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필요로 한다(황성동, 2015). 이러한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 개발된 메타분석은 동일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체계적이고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종합적인 분석 방법을 의미한다(황성동, 2015). 메타분석에 대해 Pillemer와 Light(1980)는 개별 연구의 표집을 종합하여 좀 더 큰 표집을 가지고 가설을 검증한다는 점에서 통계적 검증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좀 더 정확한 효과크기를 추정할 수 있고, 관심 있는 두 변인 간에 존재하는 관계를 잘 파악할 수 있으며, 상충하는 연구 결과가 있을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보았다.

진로준비행동 역시 상이한 연구결과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메타분석을 한 선행연구가 있었다. 이미진(2012)은 2000년부터 2012

년 2월까지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한 연구들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를 국내 연구 중 석사, 박사학위 논문만으로 범위를 한정하였고, 분석대상에 고등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까지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대학생들만의 독특한 진로발달 과정을 살펴볼 수 없으며, 대학생이라는 대상에서는 다양한 전공, 특징의 연구를 제외함으로써 본래의 국내연구를 통합한다는 목적에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선행논문의 결과를 보완하여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발표된 논문을 분석함으로써, 2012년 이후에 급속도로 많아진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변인으로 한 연구들을 포함하여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관련변인에 대한 통합적이고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고자 메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하여 연구되어진 변인은 어떤 변인들인가?

둘째,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관련 변인군별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셋째,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관련 각 변인들의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수집 및 선정

본 연구의 분석대상 수집 및 선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첫째, 연구대상 자료는 진로준비행동 측정도구가 개발·사용되기 시작한 2000년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석사·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으로 한정하였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한국학술정보원(KISS)과 국회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둘째, 논문의 언어가 한국어이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물로 한정하였다. 연구대상 자료의 수집을 위해 ‘진로준비행동’을 검색어로 사용하여 1,753편의 논문을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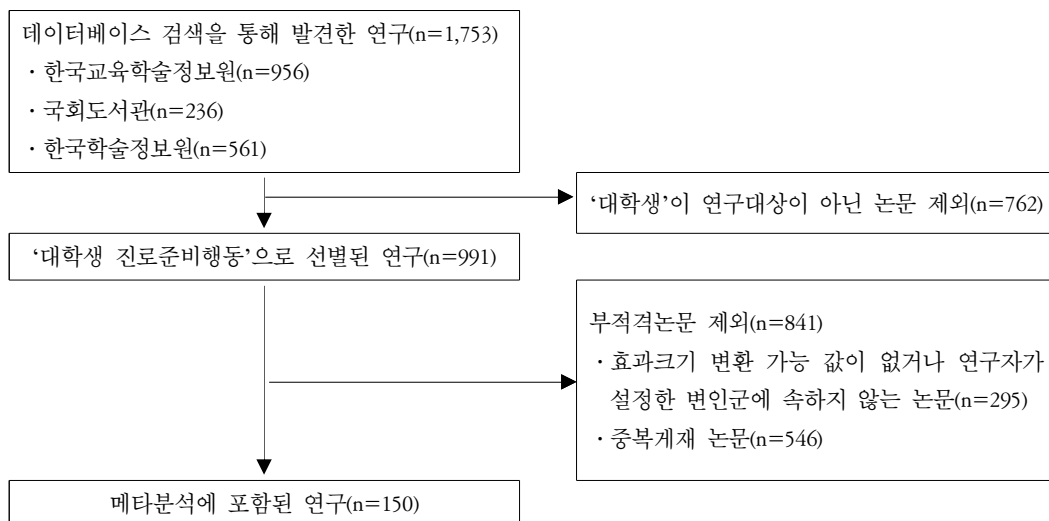


그림 1. 분석대상 논문 선정과정 PRISMA flowchart

하였다. 대학생 중에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도 메타분석에 포함시켰으며, 대학생이 연구대상이 아닌 연구물 762편을 제외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학생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논문 991편이 선정되었다. 셋째,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관련 논문 중에서 중복 게재된 논문 546편을 제외하고, 본 연구자가 설정한 변인군에 속하는 변인이 없는 연구 및 효과크기로 변환할 수 있는 값이 없는 연구 295편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50편의 논문을 분석대상 논문으로 선정하였다.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변인군으로는 진로준비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사회인지진로이론 관련 변인인 개인변인, 근접맥락변인, 자기효능감변인, 목표변인과 함께 Choi(2012)에서 제시한 자기개념(self-concept)영역을 포함시켰다. 자기개념 범주는 사회인지진로이론 모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연구에서 자주 측정되는 개념으로, 선행연구(Bechtoldt et al., 2010; Choi, 2012; Ya-Ling et al., 2014)에서는 자기개념 명확성이 개인의 진로선택이나 진로준비와 긍정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지진로이론 모델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자기개념변인군을 추가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례 수, 표본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관계수, t -값, F -값이 제시되어 있는 논문을 선정하였다.

자료 입력

최종 채택된 150편의 분석대상 논문을 분석하기 위하여 코딩 매뉴얼과 코딩표를 구성하였으며, 연구물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하여 각 논문의 해당 사항을 입력하였다. 먼저

연구물의 기본 정보는 제목, 저자, 출처, 출판연도를 포함하였으며, 표본의 특징으로 전체 학생 수, 남·여학생 수를 입력하였다. 메타분석을 위한 설계를 위하여 변인명과 측정도구 또는 측정범위(남·여, 학년)를 입력하였다. 변인의 결과치는 표본의 상관관계수, t -값, F -값, 각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 집단 수를 코딩하였다. 코딩 매뉴얼에 따라 작성된 코딩표를 바탕으로 연구자 본인과 상담전공 박사 1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코딩하였으며, 코딩 과정에서 연구자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R 3.3.3(www.r-project.org)의 메타분석용 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메타분석을 통해 평균 효과크기를 산출할 때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무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의 두 모형이 있다. 고정효과모형의 경우 모든 연구의 모집단의 효과크기는 동일하다는 가정을 가지고 분석하는 반면, 무선효과모형의 경우 모든 연구의 모집단의 효과크기는 서로 다르다는 가정 하에 분석을 실시한다. 모집단의 효과크기가 다른 이유는 대상자, 개입방법, 기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으로 본다(황성동, 2015). 연구마다 모수가 임의로 변한다고 가정하는 무선효과모형은 메타분석의 대상이 되는 각각의 연구들이 하나의 모집단으로부터 임의적으로 추출된 표본연구라는 가정 하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무선효과모형으로부터 산출된 결과의 추론은 모집단으로 일반화 시킬 수 있다(오성삼,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선효과모형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분석대상 논문의 특성

구분	내용	빈도(%)	구분	내용	빈도(%)	
출판 년도	2000년~2005년	14(9.3%)	형태	학술지	82(54.7%)	
	2006년~2010년	45(30.0%)		출판	학위논문	68(45.3%)
	2011년~2015년	91(60.7%)		계	150(100%)	
	계	150(100%)				

또한 Light와 Pillemer(1984)의 깔때기 그림(funnel plot)를 사용하여 분석대상이 되는 연구에 출판편향이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깔때기 그림은 메타분석에 사용된 연구들의 출판편향(publication bias) 경향을 살펴 볼 수 있는 도구로써(Easterbrook, Gopalan, & Berlin, 1991), 좌우 대칭으로 그려지면 효과크기 데이터에 편향이 없음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효과크기에 대한 해석은 Cohen(1988)이 제안하는 상관계수의 효과크기 해석 기준을 적용하여 $r \leq .10$ 은 작은 효과크기, $r = .25$ 는 중간 효과크기, $r \geq .40$ 은 큰 효과크기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Cohen의 효과크기 해석은 행동과학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으므로(오성삼, 2002), 보다 정밀한

해석을 위해 비중복 백분위(percentiles of non-overlap: U3)를 추가적인 정보로 활용하였다. 비중복 백분위는 효과크기를 확률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산출된 효과크기에 해당하는 Z점수를 표준정규분포의 누적확률분포표에서 찾아서 이를 다시 백분율로 표시한 값이다(이명자, 2006).

연구결과

분석대상 논문의 특성

분석에 포함된 150편의 논문을 출판년도별로 살펴보면,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김봉환(1997)의 연구 이후 대학생 진로준비행동과 관

표 2.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관련변인

변인군	변인 수	진로준비행동 관련변인(효과크기 수)
개인	8	성별(62), 연령(11), 학년(64), 성적(8), 완벽성(4), 탄력성(6), 불안(12), 희망(6)
자기개념	2	자아정체감(3), 진로정체감(11)
근접맥락	6	경제상황(4), 부모애착(11), 부모지지(5), 사회적지지(12), 진로결정자율성(4), 진로장벽(27)
자기효능감	2	자기효능감(10), 진로결정자기효능감(46)
목표	1	진로결정수준(33)
계	19	

련한 2000년~2005년 논문이 14편(9.3%), 2006년~2010년 논문이 45편(30%), 2011년부터 2015년에 출판된 논문이 91편(60.7%)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 유형별로는 학술지 게재논문이 82편(54.7%)이고, 학위논문이 68편(45.3%)이었다.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관련 변인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관련된 변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인지진로이론에 근거한 4개의 변인군, 즉 개인변인, 근접맥락변인, 자기효능감변인, 목표변인과 함께 자기개념(self-concept)변인을 추가하여 총 5개의 변인군을 선정하였고 사례 수가 3개 이상인 변인 19개를 추출하였다. 먼저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관련 개인변인군에는 성별, 연령, 학년, 성적을 포함시켰으며,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선택모형(Lent, Brown, & Heckett, 2002)에서 개인적 배경 중의 한 변인으로 보는 성격변인을 포함시켜 분석하여 탄력성, 불안, 희망변인이 추출되었다. 자기개념(self-concept)변인 군에는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 변인이 추출되었다. 근접맥락변인은 진로선택의 시점에서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환경적 요인으로서, 특정 진로를 추구 할 수 있는 가족의 정서적·재정적 지원, 당시의 경제 상황, 해당 시기의 사회문화적 진로장벽 등이 포함된다(김봉환 외, 2010). 본 연구에서 근접맥락변인군에는 경제상황, 부모애착, 부모지지,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장벽변인이 추출되었다. 자기효능감변인 군에는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변인이 추출되었다. 자기효능감은 목표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뜻한다

(Bandura, 1986). 자기효능감은 사회인지진로이론의 핵심개념으로서 자기효능감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진로상담의 실제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변인이다(김봉환 외, 2010). 마지막으로 목표변인군에는 진로결정수준변인이 추출되었으며, 진로미결정을 측정하는 연구들은 진로준비행동과 부적 상관값을 제시하였으므로, 메타분석에 포함할 때는 모두 정적인 방향으로 변환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출판편향 검증

본 연구에서 조사·수집된 논문의 편향 정도를 확인하고 연구결과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깔대기 그림(funnel plot)을 통해 출판편향을 살펴보았다. 정밀도에 의한 그림에 따르면 출판편향이 없는 경우 중합된 효과크기를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지만, 출판편향이 있을 경우에는 한쪽으로 많이 몰려있는 형태를 나타낸다(최영아, 2013).

본 연구에 사용된 전체 변인의 출판 편향은 그림 2와 같다.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하여 그림이 좌우 대칭의 형태이므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출판편향이 없다고 해석될 수 있다.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하위 변인군의 출판편향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그림이 표준효과크기를 기점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좌우대칭이므로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의 출판편향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관련 변인군의 효과크기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에 대하여 변인군별 전체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나타난 것과 같다.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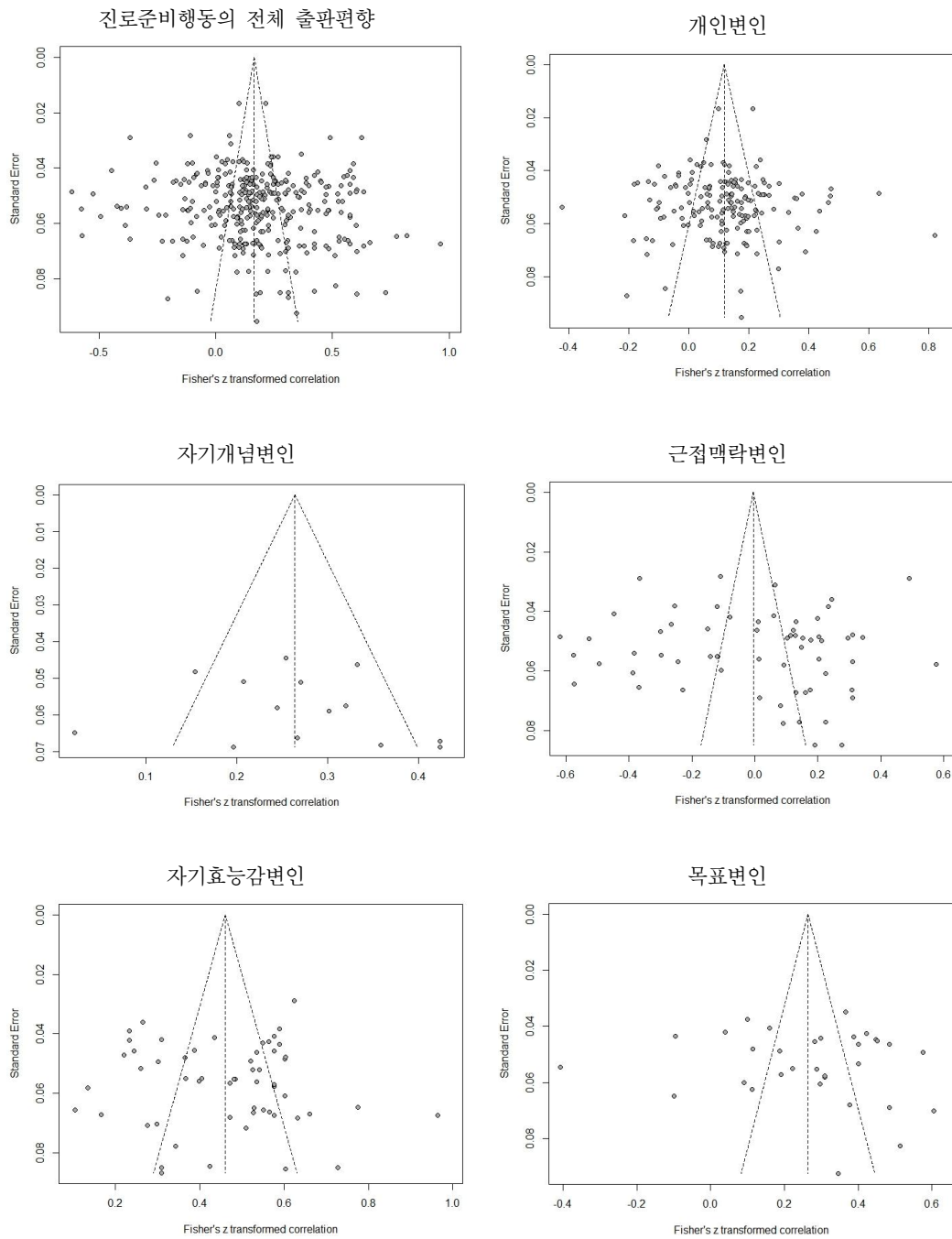


그림 2.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관련 변인의 효과크기 깔때기 그림

표 3.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관련 변인군의 효과크기

	효과 크기수	평균상관계수 (ES)	95% 신뢰구간		백분위 (U3)	순위
			하한	상한		
개인변인군	173	0.11	0.09	0.13	54.67	4
자기개념변인군	14	0.26	0.21	0.30	60.31	3
근접맥락변인군	63	-0.001	-0.07	0.06	49.96	5
자기효능감변인군	56	0.43	0.39	0.46	66.77	1
목표변인군	33	0.26	0.19	0.32	60.40	2

평균 효과크기가 가장 큰 변인군은 자기효능감 변인군으로 평균 효과크기 .43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Cohen(1988)이 제시한 상관계수의 해석 기준으로 보면 큰 효과크기에 해당한다. 또한 이에 대한 비중복 백분위 지수(U3)는 66.77%이며, 이는 표준정규분포에서 통제집단의 평균점수를 50%로 했을 때 실험집단의 평균 .43은 통제집단의 분포 상에서는 66.77%로 통제집단에 비해 16.77% 높으므로, 자기효능감변인군을 경험하지 않은 대학생과 비교했을 때 자기효능감변인군을 경험한 학생들이 진로준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16.77%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평균 효과크기가 높은 변인군은 목표변인군으로 효과크기 .26로 중간크기의 효과크기를 나타냈으며 U₃지수는 60.40%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높은 변인군은 자기개념변인군으로 효과크기 .26으로 중간크기의 효과크기를 나타냈으며, U₃지수는 60.31%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 개인변인군의 평균크기는 .11으로 작은 효과크기를 나타냈으며, U₃지수는 54.67%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근접맥락변인의 평균 효과크기는 -.001이며, U₃지수는 49.96%로 나타났다. 개인변인군과 근접맥락변인군의 경우 추출된 변인들이 정적상관의 평균 효과크기를 보이는 변인과

진로장벽과 같이 부적상관의 평균 효과크기를 나타내는 변인이 포함되어 분석되어 변인군의 전체 효과크기가 낮게 나타났다.

개인변인군의 효과크기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군 중 개인변인군의 효과크기를 산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개인변인군의 각 변인별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성격변인 중 탄력성의 효과크기가 .41로 가장 컸으며, 이는 Cohen이 제시한 상관계수 효과크기 해석기준으로 볼 때 큰 효과크기에 해당된다. 그 다음으로 성격변인 중 희망이 .37로 중간크기의 효과크기를 나타냈으며, 학년변인(.16), 연령변인(.15), 성적변인(.14)은 작은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성격변인 중 불안은 효과크기 -.11로 부적상관으로 작은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이는 불안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덜 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성격변인 중 완벽성은 .07의 효과크기를 나타냈으며, 성별은 효과크기 .04로 나타났다. 성별변인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을 차이를 분석한 t-값을 변환한 분석치를 사용하였는데, 62개의 효과크기 중 19개의 효과크기 수는 여학생이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

표 4.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관련 개인변인군의 효과크기

변인군	변인	효과 크기수	평균상관계수 (ES)	95% 신뢰구간		백분위 (U ₃)	변인군 내 순위
				하한	상한		
개인	성별	62	0.04	0.02	0.06	51.77	8
	연령	11	0.15	0.11	0.19	56.15	4
	학년	64	0.16	0.14	0.18	56.64	3
	성적	8	0.14	0.10	0.18	55.93	5
	성격-완벽성	4	0.07	-0.10	0.25	53.13	7
	성격-탄력성	6	0.41	0.29	0.52	66.11	1
	성격-불안	12	-0.11	-0.19	-0.03	45.33	6
	성격-희망	6	0.37	0.24	0.49	64.52	2

이 한다는 결과값이 나왔으며 남은 43개의 효과크기 수는 남학생이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결과값이 나왔다. 서로 상충되는 결과가 분석되어 최종 효과크기인 .04가 산출되었다. 성별 이외에도 학년, 완벽성, 불안변인에서 부적상관과 정적상관이 함께 메타분석이 되었다.

개인변인군 내 각 변인의 효과크기를 비중복 백분위 지수(U₃)로 환산한 결과를 보면, 성격변인 중 탄력성의 백분위 지수(U₃)는 66.11%이다. 이것은 탄력성이 높은 대학생이 탄력성이 높지 않은 학생에 비해 진로준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16.11%만큼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성격변인 중 희망이 14.52%, 학년이 6.64%, 연령이 6.15%, 성적이 5.93%, 완벽성이 3.13%, 성별이 1.77%씩 각 변인을 경험하지 않은 비교집단, 혹은 변인의 서열의 값이 낮은 집단에 비해 진로준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격 특성 중 불안의 경우 백분위 지수(U₃)가 45.33%이므로, 불안을 경험한 집단이 경험하

지 않은 비교집단보다 진로준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4.67% 만큼 낮다는 것을 뜻한다.

자기개념변인군의 효과크기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군 중 자기개념변인군의 각 변인별 효과크기를 산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자기개념변인군에서는 자아정체감이 효과크기 .31로 중간크기의 효과크기를 나타냈으며, 진로정체감은 효과크기 .24로 중간크기의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자기개념군 내 각 변인의 효과크기를 비중복 백분위 지수(U₃)로 환산한 결과를 보면, 자아정체감의 평균 효과크기에 대한 백분위 지수(U₃)는 62.46%로 자아정체감이 높은 집단이 자아정체감이 높지 않은 집단보다 진로준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12.46%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정체감의 백분위 지수(U₃)는 59.86%로 진로정체감이 높지 않은 집단보다 진로준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9.86%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관련 자기개념변인군의 효과크기

변인군	변인	효과 크기수	평균상관계수 (ESr)	95% 신뢰구간		백분위 (U3)	변인군 내 순위
				하한	상한		
자기개념	자아정체감	3	0.31	0.13	0.47	62.46	1
	진로정체감	11	0.24	0.20	0.29	59.86	2

근접맥락변인군의 효과크기

대학생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근접 맥락변인군 내 각 변인별 효과크기를 산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근접맥락변인군에서는 사회적지지(.26)와 부모지지(.26)가 중간크기의 효과크기를 보였다. 또한 진로장벽에서는 효과크기가 -.25의 중간크기의 효과크기가 나왔으며 이는 진로장벽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애착변인(.14), 경제상황(.13), 진로결정자율성(.08)은 작은 효과크기를 보였다.

근접맥락변인군 내 각 변인의 효과크기를 비중복 백분위 지수(U₃)로 환산한 결과를 보면, 사회적지지 변인은 60.38%로 사회적지지를 받은 집단이 사회적지지를 받지 않은 집단보다 진로준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10.38%만큼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지지가 60.35%로 부모지지를 받은 집단이 부모지지를 받지 않은 집단보다 진로준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10.3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의 경우 백분위 지수(U₃)가 39.83%인데, 이것은 진로장벽을 경험한 집단이 진로장벽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보다 진로준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10.17% 정도 낮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애착의 백분위 지수(U₃)는 5.84%, 경제상황은 5.19%, 진로결정자율성은 3.3%씩 각 변인을 경험하지 않거나 서열 값이 낮은 비교 집단에 비해 진로준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변인군의 효과크기

대학생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표 6.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관련 근접맥락변인군의 효과크기

변인군	변인	효과 크기수	평균상관계수 (ESr)	95% 신뢰구간		백분위 (U3)	변인군 내 순위
				하한	상한		
근접맥락	경제상황	4	0.13	0.05	0.20	55.19	5
	부모애착	11	0.14	0.10	0.19	55.84	4
	부모지지	5	0.26	0.09	0.41	60.35	2
	사회적지지	12	0.26	0.19	0.33	60.38	1
	진로결정자율성	4	0.08	0.00	0.16	53.30	6
	진로장벽	27	-0.25	-0.32	-0.19	39.83	3

표 7.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관련 자기효능감변인군의 효과크기

변인군	변인	효과 크기수	평균상관계수 (ESr)	95% 신뢰구간		백분위 (U3)	변인군 내 순위
				하한	상한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10	0.30	0.22	0.37	61.93	2
	진로결정자기효능감	46	0.45	0.42	0.49	67.64	1

군 중 자기효능감변인군의 각 변인별 효과크기를 산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자기효능감 변인군 중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효과크기 .45로 큰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자기효능감은 효과크기 .30로 중간크기의 효과크기를 보였다. 또한 자기효능감변인군에서 추출된 변인의 비중복 백분위 지수(U₃)를 살펴보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67.64%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지 않은 비교집단에 비해 진로준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17.64%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역시 61.93%의 백분위 지수(U₃)를 보여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이 자기효능감이 높지 않은 집단보다 진로준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11.93%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변인군의 효과크기

대학생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군 중 목표변인군의 효과크기를 산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목표변인군에 포함된 진로결정수준변인의 평균 효과크기는 .26로 중간크

기의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이를 비중복 백분위 지수(U₃)로 환산하면 60.40%에 해당하며, 이것은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집단이 진로결정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진로준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10.40%만큼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는 메타분석적 접근을 통하여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하여 어떤 변인들이 어느 정도의 효과크기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 나타난 주요 결과를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관련 변인은 사회인지진로이론을 근거로 한 4개의 변인군(개인변인, 근접맥락변인, 자기효능감변인, 목표변인)에 자기개념변인군을 추가한 5개 변인군에서 총 19개의 변인이 추출되었다. 개인변인군에는 8개의 변인(성별, 연령, 학년, 성적, 성격특성 중 완벽성, 탄력성, 불안, 희망)

표 8.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관련 목표변인군의 효과크기

변인군	변인	효과 크기수	평균상관계수 (ESr)	95% 신뢰구간		백분위 (U3)	변인군 내 순위
				하한	상한		
목표	진로결정수준	33	0.26	0.19	0.32	60.40	-

이 추출되었다. 자기개념변인군에는 2개의 변인(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이 추출되었으며, 근접맥락변인군에서는 6개의 변인(경제상황, 부모애착, 부모지지,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장벽)이 추출되었다. 자기효능감변인군에서는 2개의 변인(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추출되었으며, 목표변인군에는 유일하게 진로결정수준변인이 추출되었다.

다섯 가지 변인군 중에는 개인변인군의 효과크기수가 173개로 가장 많으며, 이것은 특히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변인인 학년($k=64$)과 성별($k=64$)변인의 효과크기 수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근접맥락변인의 경우 효과크기 수가 63으로 두 번째로 많이 분석되었는데, 이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을 기반으로 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개인의 인지적, 태도적인 변인을 밝히는 연구 이외에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요인에도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추출된 변인 중에서는 개인변인군의 학년($k=64$)과 성별($k=64$)이 가장 많은 효과크기 수를 가졌다.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변인인 학년, 성별변인과 함께 가장 많이 분석된 변인 중 하나는 46개의 효과크기 수를 가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선택모형에서 결과기대, 흥미, 목표선택, 활동의 선택, 실행 영역 및 성취 영역까지도 영향을 주는 자기효능감의 변인이다. 때문에 국내 진로발달 연구에서도 꾸준히 연구되고 있어 본 연구의 메타분석에서 많은 효과크기 수로 분석을 실시하게 되었다.

둘째,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관련 변인군별 전체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사회인지진로이

론 모델에서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자기효능감변인군이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였다. 자기효능감변인군의 효과크기는 .43으로 이는 Cohen이 제시한 상관계수 효과크기 해석기준으로 볼 때 큰 효과크기에 해당된다. 비중복 백분위 지수(U_3)는 66.77%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자기효능감변인군을 경험한 집단이 자기효능감변인군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보다 진로준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16.77% 정도 높은 것을 의미한다. 목표변인군과 자기개념변인군은 모두 효과크기가 .26으로 중간크기의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개인변인군과 근접맥락변인군은 효과크기가 각각 .11과 -.001로 상대적으로 값이 작았는데, 이는 개인변인군과 근접맥락변인군에 포함된 변인들 중에는 진로준비행동을 유발하는 변인과 억제하는 변인이 함께 포함되어 결과값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각 변인의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인 변인은 자기효능감변인군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변인의 효과크기는 .45이며 이는 Cohen이 제시한 상관계수 효과크기 해석기준으로 볼 때 큰 효과크기에 해당된다. 또한 95%의 신뢰구간에서 상한값이 .42이고 하한값이 .49인 것으로 보아 효과크기 분석에 포함된 효과크기의 수가 46개로 많은 편임을 감안할 때 효과크기의 값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진로준비행동 관련변인에 대해 메타분석을 실시한 이미진(201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미진(2012)의 연구에서는 분석은

문의 대상에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두 분석결과를 비교하기 쉽지 않기는 하나 진로결정자기효능감변인의 평균 효과크기가 .92로 큰 효과크기를 가졌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개별 변인 중 두 번째로 효과크기가 큰 변인은 성격특성인 탄력성변인이다. 탄력성변인은 효과크기가 .41로 큰 효과크기로 분석되었다. 그 다음으로 성격특성 중 희망변인의 효과크기가 .37, 자아정체감변인이 .31, 자기효능감변인이 .30으로 모두 중간 크기의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목표변인군의 진로결정수준변인 역시 효과크기 .26로 중간 크기의 효과크기를 보였다. 근접맥락 변인군에서는 사회적지지변인과 부모지지변인의 효과크기가 각각 .26으로 진로행동을 유발하는 효과크기가 중간 크기의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이미진(2012)의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지지변인의 효과크기가 1.11로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고, 이러한 결과는 진로준비행동과 부모지지 간의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청소년 관련 선행연구의 연구결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 대학생이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부모지지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로장벽변인의 효과크기가 -.25로 진로준비행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중간 크기의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하여 큰 효과크기와 중간 크기의 효과크기를 가진 변인들을 살펴보았을 때 진로준비행동을 억제하는 변인도 있지만 행동을 유발하는 변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분석된 변인중 성별의 경우 효과크기

.04로 작은 크기의 효과크기를 보였다. 비중복 백분위(U_3)가 51.77%이므로 이것은 진로준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1.77%만큼 높음을 의미한다. 성별변인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분석에 있어 상충되는 결과값들이 발생하여 최종 결과가 낮게 분석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드러나는 결과로 이미진(2012)의 연구에서도 성별변인의 평균효과크기가 .027로 상충되는 결과 값이 발생하여 효과크기가 작았음을 설명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의 대학생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변인의 관계를 메타분석하고 분석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를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의 상이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인 결론으로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발간된 국내 논문 중, 대학생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직업 선택을 하기 직전인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에 관하여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셋째, 사회인지진로이론을 바탕으로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관련 주요 변인에 대한 국내 연구의 동향과 변인들의 효과크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추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즉 사회인지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론적 모형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관련성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모형의 검증 및 추후 연구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본 연구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탄력성, 희망과 같은 진로준비

행동 유발변인이 진로장벽, 불안 등 진로준비 행동 억제변인보다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상담을 하거나 직업 탐색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좀 더 중점을 두고 강조해야할 구체적인 개입요인이 제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 진로행동 관련변인들의 효과크기를 탐색함에 있어 하위변인 통제치를 배제하고 변인의 전체 통제치가 나온 변인들을 선정하였다. 때문에 심리적 독립 등 하위변인의 분석에서 의미가 있는 변인들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므로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한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하위변인의 분석 통제치 중 의미 있는 변인들을 통합하는 시도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일부 변인들은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진로와 관련해서 많이 연구되어진 진로성숙도 및 진로동기, 직업가치관 등과 진로준비행동과의 효과크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물에 한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진로발달 과정에서 대학생 시기가 진로 결정에 주요한 시기라는 점을 바탕에 두었기 때문이다. 추후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만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분석하는 등, 연구대상 집단의 특성에 따라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변인의 효과크기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영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봉환, 이제경, 유현실, 황매향, 공윤정, 손진희, 강혜영, 김지현, 유정이, 임은미, 손은령 (2010). 진로상담이론: 한국 내담자에 대한 적용. 서울: 학지사.
- 김영혜, 안현의 (2012). 사회인지진로이론적 관점에 근거한 국내 진로발달연구의 동향 분석 - 대학생 연구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5(4), 1-18.
- 김정화, 김미경, 김진경, 고은영 (2012).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따른 군집유형과 진로장애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2), 417-442.
- 김현수, 장기명, 이 난 (2004).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적용이 대학생의 진로 및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효과. 교육심리연구, 18(1), 261-218.
- 김희진 (2001).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이 진로태도성숙과 진로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5, 369-393.
- 박초희 (2012). 대학생의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성삼 (2002). 메타분석의 이론과 실제. 건국대학교 출판부.
- 유수복 (2013).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기학 (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 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자아존중감 직업가치 내외통제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

- 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명자 (2006).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의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발육발달 학회지*, 14(1), 51-60.
- 이제경, 이승구 (2007). 취업 청소년의 진로기대 및 취업준비행동. *진로교육연구*, 20(3), 121-137.
- 최영아 (2013). 자기조절학습과 정의적 특성의 관련성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정신 (1991). 한국대학생 문제진단검사 개발 연구. *학생생활연구*, 17, 1-53.
- 황성동 (2015). R을 이용한 메타분석. 학지사.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echtoldt, M. N., De Dreu, C. K. W., Nijstad, B. A., & Zapf, D. (2010). Self-Concept Clarity and the Management of Social Conflict. *Journal of Personality*, 78(2), 539-574.
- Choi, B., Park, H., Yang, E., Lee, S., Lee, Y., and Lee, S. (2012). Understanding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 Meta-Analytic Approach.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9(5), 443-460.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ed.).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Easterbrook, P. J., Gopalan, R., Berlin, J. A. (1991). Publication bias in clinical research. *The Lancet*, 337, 867-872.
- Hackett, G. & Lent, R. W. (1992). Theoretical advances and current inquiry in career psychology. In S. D. Brown & R. W. Lent (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2nd ed., pp. 419-451). NY: Wiley.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36-49.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2002).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In D. Brown & Associate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4, 255-311.
- Osipow, S. H. (1990). Convergence in theories of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Review and prospec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6, 122-131.
- Pillemer, D. B. & R. J. Light. (1980). Synthesizing outcomes: How to use research evidence from many studies. *Harvard Educational Review*, 50, 176-195.
- Smith, C. L., & Gerhart, B. (1991). The impact of job search strategy and interviewer assessments of employability on multiple measures of labor market success. Paper presented at the 1991 Academy of Management Meetings, Miami, FL.
- Ya-Ling, W., Yu-Lin, T., & Cheng-Wu, C. (2014). Examining the experiences of career guidance, vocational self-concept, and self-perceived employability among science education majors in Taiwan. *Journal of Baltic Science Education*, 13(2), 152-190.

원고접수일 : 2017. 10. 15.
수정원고접수일 : 2017. 12. 19.
최종게재결정일 : 2017. 12. 20.

Meta-Analysis on Variables Related to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College Students

Yu Ri Park

Se Young Ahn

Bo Young Choi

Jeju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a systematic review of the previous research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college students. The meta-analysis was used to analyze dissertations and academic journals published in Korea from the year of 2000 to 2015 which dealt the variables of college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19 variables were extracted from 5 variable groups based on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which were individual variables, proximate context variables, self-efficacy variables, target variables and self-concept variables. Second,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group was self-efficacy variables, which was followed by self-concept variables, target variables, individual variables and proximate context variables. Third,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wa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lso resilience showed a large effect size. The effects of hope, self-identity,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level, social support, parent support, and career barriers were moderate. Limitations to the current study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college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eta-analysis